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08

보험과 생활위험 관리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먼저 골라 보장과 비용을 관리한다.

교수자용 지도서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교수자 안내

설명보다 학습자의 실제 기록·선택 이유·도움 요청 문장을 확인한다. 피해·채무·질병·가족갈등을 공개하도록 압박하지 않는다.

수업 목표

- 보험이 위험을 이전하는 원리와 자기부담을 설명한다.
- 보장·면책·금액·갱신·해지환급 조건을 찾는다.
- 가계 위험의 크기와 보험료 감당 가능성을 비교한다.
- 청구와 분쟁에 필요한 진료·계약·설명 기록을 준비한다.

교과 해설 · 왜 가르치고 왜 이 순서인가

보험은 사고가 나면 돈을 받는 약속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어디까지 나눌지 정하는 계약입니다

보험료를 냈다고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 대상·기간·금액·면책·고지와 청구자료가 맞아야 실제 보호가 작동합니다.

위험·보험료·보장·면책·청구의 관계를 먼저 이해한 뒤 가입·유지·청구 사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수업이 보호하려는 생활영역

- 질병·사고 뒤 생활비
-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실
-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능력
- 청구할 권리와 자료
- 중복·공백 없는 보장

개념의 선후관계

순서	개념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는 이유
1	위험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2	보험료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3	보장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4	면책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5	청구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교수자가 지킬 설명 원칙

- 보험상품 이름보다 위험이전의 원리를 먼저 설명합니다.
- 보험료 절감과 무조건 해지를 같은 뜻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 보장과 면책을 항상 함께 읽게 합니다.
- 개별 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단정하지 않고 서면 근거 확인으로 연결합니다.

필수개념 지도표

위험

사고가 생길 가능성과 생겼을 때의 손실을 함께 말합니다.

- 생활 예: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주택 화재의 손실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 반대 예: 자주 생기는 일만 위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보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수단입니다.
- 이해확인: 가능성이 낮으면 보험을 볼 필요가 없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손실 크기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보험료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자가 내는 돈입니다.

- 생활 예: 월 보험료가 가계예산에서 계속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반대 예: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이 넓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 연결: 보험료는 보장·기간·가입조건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이해확인: 한 달 보험료만 같으면 두 보험은 같은가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보장 범위·금액·면책·갱신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

약관에서 정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범위입니다.

- 생활 예: 입원이라는 말만 보지 않고 질병·기간·지급한도를 확인합니다.
- 반대 예: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모든 치료비가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보장은 지급사유·금액·기간·대기기간·한도를 함께 읽습니다.
- 이해확인: 상품 이름에 암이 있으면 모든 암이 같은 금액으로 보장되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약관의 분류와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과 제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 생활 예: 특정 기간·행위·기존 상태가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 반대 예: 광고에 보장한다고 쓰였으니 제외 조건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보장과 면책은 한 쌍으로 읽어야 실제 보호범위를 압니다.
- 이해확인: 보장 항목만 읽으면 가입 판단에 충분한가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면책·감액·대기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사고가 약관의 지급조건에 해당함을 자료로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생활 예: 진단·치료·사고 기록과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
- 반대 예: 보험회사에 전화로 말하면 모든 청구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연결: 청구는 사고 사실·약관 조건·의료 또는 손해 자료를 연결합니다.
- 이해확인: 보험금이 거절되면 구두 항의만 하면 되나요?

도달 기준: 서면 사유와 적용 약관을 요청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기초개념 설명 수업안

각 단원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원리 설명-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교정-확인문제의 순서로 지도합니다.

1. 위험을 보험으로 옮긴다는 뜻

도입 질문: 보험은 무엇을 해결할까요?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큰 경제적 손실이 생길 때 약정한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사고 자체를 막거나 모든 손실을 되돌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발생 가능성은 낮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우선 보험으로 대비하고, 작은 손실은 저축이나 자기부담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순서 1: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를 적습니다.
- 판단 순서 2: 이미 공적 보장이나 직장 보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부족한 위험만 보험으로 보완합니다.
- 시범 사례: 휴대전화 액정 수리처럼 감당 가능한 손실보다 장기간 치료로 소득이 끊기는 위험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걱정되는 모든 일을 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 확인 질문: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고는 보험이 필요 없을까요?

도달 기준: 피해 규모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낮은 가능성이라도 대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도입 질문: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같을까요?

계약자는 계약을 맺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는 사고 위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입니다.

역할이 다르면 동의·변경·청구 권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보험에서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보험증권에서 세 역할의 이름을 찾습니다.
- 판단 순서 2: 변경 권한과 필요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가족관계 변화 때 수익자와 연락처를 점검합니다.
- 시범 사례: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피보험자이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배우자인 계약처럼 세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보험료를 내면 모든 변경과 보험금 수령 권한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 확인 질문: 계약자가 언제나 보험금을 받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보험수익자와 사고 종류에 따라 받을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보장·면책·자기부담금

도입 질문: 가입했는데 왜 보험금이 다 나오지 않을까요?

보장은 보험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뜻하고, 면책·지급제한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 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상품 이름이나 보장금액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장 개시일, 제외 질병·행위, 감액기간과 갱신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보장하는 사고의 정의를 찾습니다.
- 판단 순서 2: 보장하지 않는 경우와 대기·감액기간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자기부담금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시범 사례: 치료비 100만원이라도 자기부담금과 보장 제외 항목이 있으면 100만원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진단명이 있으면 약관과 관계없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 확인 질문: 가입금액이 1천만원이면 모든 사고에서 1천만원을 받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약관의 지급 사유와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청구·유지·갱신

도입 질문: 보험은 가입 뒤 무엇을 관리할까요?

사고가 나면 약관상 사고인지 확인하고 진단·치료·지출 자료를 갖춰 청구합니다. 청구 가능 기간과 필요한 서류는 사고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와 조건이 바뀔 수 있고, 납입 중단이나 해지에는 보장 공백과 환급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판단 순서 1: 사고 일시와 치료·지출 원본을 보관합니다.
- 판단 순서 2: 보험회사에 청구서류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갱신·납입·해지 전 보장 공백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 시범 사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즉시 해지하기보다 중복 보장, 감액·납입조정 가능성과 새 보험의 대기기간을 확인합니다.
- 바로잡을 오해: 보험금 청구가 번거로우면 언제든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은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확인 질문: 새 보험에 가입한 날 기존 보험을 바로 해지해도 될까요?

도달 기준: 보장 개시와 면책·대기기간을 확인해 공백이 없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시범풀이 지도

싸지만 필요한 보장이 빠진 보험

월 보험료가 가장 싼 상품을 찾았지만 자주 걱정하는 위험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결정: 가격보다 보호할 위험을 먼저 정합니다.

- 정보: 지급사유·한도·면책·보험료를 같은 표에 적습니다.
- 위험: 보험이 있어도 필요한 사고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동: 감당 가능한 보험료 안에서 핵심 공백을 확인합니다.
- 기록: 상품설명서와 비교 이유를 남깁니다.

60분 핵심 수업에서도 '왜 배우는가·필수개념·개념 작동 과정·시범풀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사례 수를 줄이되 기초학습은 줄이지 않습니다.

보강 주제 지도안

기존 기초개념을 최근 생활 장면에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 직후에는 청약철회·보장개시·면책을 함께 봅니다

철회 가능 기간과 보장 시작 시점, 보험금이 제한되는 조건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 않을 것: 보험료가 출금됐다는 이유로 모든 보장이 시작됐거나 모든 사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청약서·증권·약관에서 철회 기한일, 보장개시일, 대기기간, 면책·감액 조건을 찾습니다.

지금 할 일: 설명과 서류가 다르면 즉시 보험회사 공식 창구에 서면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합니다.

공식 근거: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권리 · 검토 2026-08-24

<https://www.fsc.go.kr/no040101?cnId=1253>

실손·간병·장기요양은 서로 대신하는 보장이 아닙니다

의료비, 간병비, 장기요양 서비스는 지급 기준과 자기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하지 않을 것: 보험 이름만 보고 공적 장기요양과 민간보험이 같은 비용을 모두 보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공적 급여·비급여, 민간보험 지급조건, 대기·면책, 가족이 부담할 시간과 비용을 구분합니다.

지금 할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급여 안내와 내 보험 약관을 나란히 놓고 빈틈을 계산합니다.

공식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 검토 2026-08-24

<https://www.longtermcare.or.kr/>

60분 핵심 수업안

시간	활동	교수자 확인
0~5분	생활장면·학습 이유	이 학습이 지키는 생활영역 확인
5~15분	용어와 개념카드	뜻·예·반대 예·개념 관계 확인
15~30분	개념 작동 과정	원리·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확인
30~38분	시범풀이	교수자가 판단과정을 소리 내어 보여 줌
38~50분	사례 1개	즉시·나중 결과와 추가정보 비교
50~60분	행동·권리·다음 학습	기초 확인문제와 실행 날짜 확인

90분 수업안

시간	활동	산출물
0~10분	진단·학습계약	개인정보·발언 선택권 확인
10~25분	Part 2·3 구조읽기	용어 8개 생활 예시
25~45분	Part 4 비교도구	비교표 1장
45~70분	사례 5개 모둠실습	선택·근거·추가정보·다음 행동
70~82분	권리·지원 역할연습	도움 요청 문장
82~90분	사후평가·30일 약속	개인 행동계획

다섯 사례 운영 질문

1. 보험료가 버겁다

소득이 줄어 모든 보험을 해지하려 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해지 전 보장 공백과 환급 손실을 비교한다.
- 추가정보: 계약별 조정 가능성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필수 보장·감액·납부 조정·해지 손실을 계약별로 확인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오래된 것부터 모두 해지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대출로 보험료를 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2. 실손 중복

여러 계약이면 실제 의료비보다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정액과 실손 보상 방식을 구분한다.
- 추가정보: 실제 지급은 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보상 방식과 중복 가입 내역을 공식 조회로 확인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같은 보장을 계속 추가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설계사 말만 믿는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3. 갱신 보험료

첫 보험료만 보고 장기 계약을 결정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미래 보험료가 바뀔 구조인지 확인한다.
- 추가정보: 정확한 향후 보험료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갱신 주기·변동 가능성·장기 유지 비용을 묻는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지금 보험료만 비교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갱신은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라 생각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4. 고지 누락

과거 진료를 말하면 가입이 안 될까 걱정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질문받은 사실을 정확히 고지한다.
- 추가정보: 누락은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질문서를 정확히 읽고 사실대로 답한 기록을 남긴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뺀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설계사가 쓰라는 대로 서명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5. 청구 기록 부족

전화로만 안내받아 거절 사유를 모른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사실·약관·답변을 문서로 모은다.
- 추가정보: 이후 내부 민원과 분쟁조정에 같은 기록을 사용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서면 사유·약관 근거·접수기록을 요청해 분쟁 파 일을 만든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포기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오개념 바로잡기

오개념: 보험은 많이 들수록 안전하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갱신형은 보험료가 계속 같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설계사에게 말했으면 질문서가 달라도 괜찮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평가 해설

1. 보험과 생활위험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정답 A.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질병·장해·배상 위험을 먼저 적는다.

- A.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질병·장해·배상 위험을 먼저 적는다.
- B. 이 선택은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질병·장해·배상 위험을 먼저 적는다.
- C. 이 선택은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질병·장해·배상 위험을 먼저 적는다.
- D. 이 선택은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질병·장해·배상 위험을 먼저 적는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정답 B.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

- A. 이 선택은 '현재 보이는 금액만'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 B.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 C. 이 선택은 '광고 순위와 후기 수'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 D. 이 선택은 '친구가 선택한 상품'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정답 C.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 A. 이 선택은 '기억해 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 B. 이 선택은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 C.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 D. 이 선택은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답 C.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 A. 이 선택은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 B. 이 선택은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 C.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 D. 이 선택은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정답 C.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청구에 상담한다.

- A. 이 선택은 '추가 차입·송금으로 시간을 번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 B. 이 선택은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 C.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 D. 이 선택은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6. 사례 '보험료가 버겁다'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필수 보장·감액·납부 조정·해지 손실을 계약별로 확인한다.

- A. 해지 전 보장 공백과 환급 손실을 비교한다. 계약별 조정 가능성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 B. 이 선택은 '오래된 것부터 모두 해지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해지 전 보장 공백과 환급 손실을 비교한다. 계약별 조정 가능성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 C. 이 선택은 '대출로 보험료를 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해지 전 보장 공백과 환급 손실을 비교한다. 계약별 조정 가능성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해지 전 보장 공백과 환급 손실을 비교한다. 계약별 조정 가능성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7. 사례 '실손 중복'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보상 방식과 중복 가입 내역을 공식 조회로 확인한다.

- A. 정액과 실손 보상 방식을 구분한다. 실제 지급은 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B. 이 선택은 '같은 보장을 계속 추가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정액과 실손 보상 방식을 구분한다. 실제 지급은 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C. 이 선택은 '설계사 말만 믿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정액과 실손 보상 방식을 구분한다. 실제 지급은 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정액과 실손 보상 방식을 구분한다. 실제 지급은 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 사례 '갱신 보험료'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갱신 주기·변동 가능성·장기 유지 비용을 묻는다.

- A. 미래 보험료가 바뀔 구조인지 확인한다. 정확한 향후 보험료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 B. 이 선택은 '지금 보험료만 비교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미래 보험료가 바뀔 구조인지 확인한다. 정확한 향후 보험료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 C. 이 선택은 '갱신은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라 생각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미래 보험료가 바뀔 구조인지 확인한다. 정확한 향후 보험료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미래 보험료가 바뀔 구조인지 확인한다. 정확한 향후 보험료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9. 사례 ‘고지 누락’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질문서를 정확히 읽고 사실대로 답한 기록을 남긴다.

- A. 질문받은 사실을 정확히 고지한다. 누락은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B. 이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뺀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질문받은 사실을 정확히 고지한다. 누락은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C. 이 선택은 ‘설계사가 쓰라는 대로 서명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질문받은 사실을 정확히 고지한다. 누락은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질문받은 사실을 정확히 고지한다. 누락은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10. 사례 ‘청구 기록 부족’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서면 사유·약관 근거·접수기록을 요청해 분쟁 파일을 만든다.

- A. 사실·약관·답변을 문서로 모은다. 이후 내부 민원과 분쟁조정에 같은 기록을 사용한다.
- B. 이 선택은 ‘포기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사실·약관·답변을 문서로 모은다. 이후 내부 민원과 분쟁조정에 같은 기록을 사용한다.
- C. 이 선택은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사실·약관·답변을 문서로 모은다. 이후 내부 민원과 분쟁조정에 같은 기록을 사용한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사실·약관·답변을 문서로 모은다. 이후 내부 민원과 분쟁조정에 같은 기록을 사용한다.

민감한 상황 대응

- 피해·연체·가족갈등 경험을 전체 앞에서 말하게 하지 않는다.
- 즉시 위험·범죄·자해 위험이 있으면 교육보다 안전과 기관 연계를 우선한다.
- 교수자가 법률·세금·투자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적용 시점의 공식 상담을 연결한다.
- 개인 활동지는 수거를 최소화하고 보관·폐기 기준을 사전에 알린다.

수준별·상황별 조정

학습 상황	조정 방법	지켜야 할 기준
청소년·초보	용어를 생활 장면과 그림으로 먼저 설명	계약 책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음
저문해·이주민	한 문장 한 정보, 숫자·날짜를 크게 표시	통역·쉬운 자료 제공 여부 확인
고령·시각 불편	큰 글씨와 소리 내어 읽기, 충분한 응답시간	대신 결정하지 않고 본인 의사 확인
피해 경험자	가상사례와 비공개 선택지 사용	경험 공개·책임 추궁 금지

수행평가 루브릭

기준	기초	도달	확장
구조 이해	용어를 찾는다	돈·책임·기한을 설명한다	예외와 변동 가능성을 말한다
비교 판단	한 요소를 본다	총비용·위험·권리를 비교한다	최악 시나리오와 중단 기준을 정한다
행동·기록	행동을 고른다	날짜·근거·증거를 적는다	공식 기관에 묻는 문장을 작성한다
권리·지원	기관을 안다	알맞은 기관을 고른다	다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다

자료 업데이트 점검

내용 기준일 2026-08-24, 다음 정기점검 2026-11-20. 숫자·기한·기관명·URL·법령 개정 여부를 수업 전에 다시 확인한다.

점검 대상	질문	기록
법·제도	시행일·대상·예외가 바뀌었는가	확인 URL·날짜
숫자·기한	한도·세율·신청기한이 유효한가	공식 문서 제목
기관·서비스	명칭·전화·주소·절차가 유효한가	접속·전화 결과
사례	과장·낙인·단정이 없는가	수정 사유

교수자료 A · 개념·경계 지도

이 모듈이 담당하는 역량과 다른 모듈로 넘겨야 할 내용을 구분한다.

영역	이 모듈에서 다룰 것	수업에서 단정하지 않을 것
이해	보험이 위험을 이전하는 원리와 자기부담을 설명한다.	개별 계약의 최종 법률효과
비교	보장·면책·감액·갱신·해지환급 조건을 찾는다.	미래 가격·금리·수익의 예측
행동	가계 위험의 크기와 보험료 감당 가능성을 비교한다.	모든 학습자에게 같은 정답 강요
권리	청구와 분쟁에 필요한 진료·계약·설명 기록을 준비한다.	기관의 최종 결정·판결 결과

교차 모듈

- EDU-15 금융분쟁·민사구제

교수자료 B · 수업 전 최종 검증표

수업 당일에도 공식 근거와 접근성을 다시 확인한다.

검증 항목	완료	메모
공식 URL 접속과 적용 기준일	☐	
한도·기한·기관명 최신성	☐	
본문·화면 글자 크기와 대비	☐	
활동지 개인정보 최소화	☐	
민감 경험 비공개 선택권	☐	
상담·신고 연결 방법	☐	
60분·90분 시간 배분	☐	
사전·사후평가 동일 역량	☐	

공식 확인처

-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https://fine.fss.or.kr/>
- 생명보험협회 · 내보험찾아줌 · <https://cont.insure.or.kr/>
- 손해보험협회 · 보험소비자 정보 · <https://www.knia.or.kr/>
- 금융감독원 · 금융분쟁조정 · <https://www.fss.or.kr/>